

옷이 주는 영향



‘멋도 주고 해(害)도 주고’

—여성 근로자에게—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한 상 덕

고금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옷이 날개」라는 말과 옷은 제 2의 피부라는 말들이 있다.

이러한 말들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존중사상을 바탕으로 기능적인면에 있어서 옷을 만들 때 제일 중요시 되는 바가 강조되고 있음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생활환경의 변화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풍요로워져서 그 모양이 용도별로 다양해져 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의상인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가 밀려가고 있다.

양복과 양장은 생활양식이 다른 서구문명의 소산으로 우리들의 생활공간에 있어서 몸마져 해치는 옷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서서히 밀려 난 우리 고유

의 의상인 바지저고리, 치마저고리가 얼마나 이상적인 옷이었나.

습도가 높은 여름과 겨울의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우리 몸을 죄는 요소를 칠두칠미하게 방지하여 우리들의 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가급적 옷과 살갓사이의 통풍 공간을 주어 원활하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죄는 옷을 거부하는 체질을 소유하고 있는 민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와는 달리 서구사람들은 조이는 옷을 입는 습관이 강렬하다.

그러나 민족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는 뿌리를 모르고 받아 들인 서구 사람들의 습관중 의생활 습관으로 살갓에 밀착시키는 속옷의 발달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선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 많이 입게 되는 죄는 삼각팬티와 콜셋이다.

이 삼각팬티는 인체 델타의 압박대라 할 수 있다. 서구 여성들은 그외에 더욱 죄이는 콜셋을 착용하여 엉덩이, 복부, 허벅지등을 죄므로써 용모를 변신 시키고 있다.

문헌은 찾아보면 18세기에 있어서 서구의 귀부인들은 세겹의 콜셋을 착용했다고 하며, 그로 인하여 이가 몸에 기생할 틈마져 주지 아니하였다는 작가 「모리엘」이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몸의 중간 부위를 압박함으로 편안하게 앉지도 못하고 서서도 몸을 자유롭게 구부리는데 불편이 대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폐활량을 감

촉시켜 현기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고 한다.

근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 160 명을 대상으로 콜셋과 죄이는 삼각팬티의 착용 여부와 그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우선 콜셋과 죄이는 삼각팬티의 착용율은 160 명의 여자 종업원중 콜셋의 경우 13.75%인 22 명이 착용하고 있었으며, 죄이는 삼각팬티의 경우 56.5%인 90 명의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었다.

「몸에 꼭조이는 콜셋이나 삼각팬티는 신체의 호흡기능과 소화기능에 장애일으켜」 작업능률에도 영향 줘 우리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몸을 죄이는 콜셋이나 삼각팬티를 착용 하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몸을 압박하여 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작업능률과 품질면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콜셋을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 웨이스트에 걸리는 압박현상을 조사한 바 우리 몸을 크게 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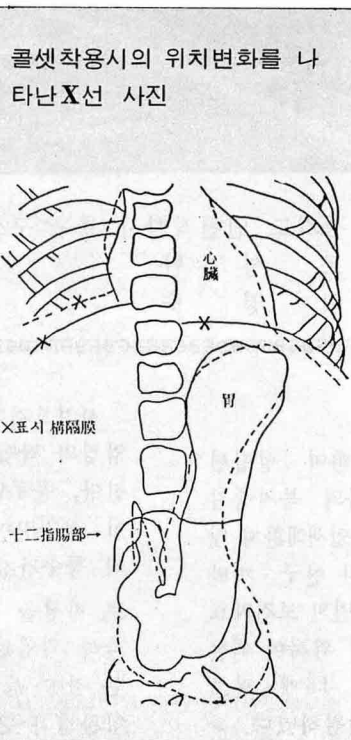
콜셋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서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압력이 32.6 g/cm^2 인데 비하여 착용했을 때 걸리는 압력은 35.4 g/cm^2 로 2.8 g/cm^2 라는 압력이 더하여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콜셋을 착용하고 작업 의자에 앉았을 때에 걸리는 압력은 43.5 g/cm^2 이고 착용하

지 아니하고 작업의자에 앉았을 때는 38.1 g/cm^2 로서 5.4 g/cm^2 의 압력이 더 가중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편한 자세로 앉았을 때 콜셋 착용시 46.3 g/cm^2 인데 비하여 착용치 않았을 때 38.1 g/cm^2 로서 8.2 g/cm^2 라는 아주 큰 압력을 받게 되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 영향으로는 생리적으로 맥박수의 증가와 호흡수를 증가시키는 물론 증혈기능(增血機能)의 저하에서 오는 소화불량(消化不良)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몸에 부담이 커져서 피로가 겹치게 되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선부분은 콜셋을 착용하였을 때 우리 몸의 장기에 위치변화를 일으켜 횡경막이 윗쪽으로 밀려 올라가 호흡기능이 장애를 일으키고 심장을 정상위치에서 보다 오른쪽으로 경사가 되어 폐순환에 크게 지장을 일으키고 위부위는 중양이 되는 곳에서 상하로 늘어져 위하수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죄이는 삼각팬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 몸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죄이지 않는 느슨한 팬티의 착용을 권한다.

만일 몸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라면 영양섭취로 조절함이 바람직스럽다.

비록 험렁한 걸옷을 입었다 라도 꼭조이는 팬티를 착용하였다면 몸에 오는 부담이 커짐을 명심해야 한다.

「너무 꼭끼는 청바지」

요즘 유행의 흐름을 타고 꼭조이는 청바지를 입는 젊은 남녀들이 많아졌다.

이렇듯 몸매를 아름답게만 보이려는 심리에서 몸에 너무 조이는 의복들을 입는 것은 멧을 내주는 효과만큼 장애를 일으키는 효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